

전문병원 지정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전문화·특성화된 중소병원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제1기(2011년~2014년)에는 관절, 척추 등 11개 질환과 산부인과, 안과 등 9개 진료과목의 21개 분야에 대해 99개소의 전문병원을 지정하였고, 제2기(2015년~2017년)부터는 진료과목과 질환의 중복분야를 폐지하고 주산기(모자)분야를 신설하여 총 20개 분야에 대해 111개소를 지정하였다. 2020년 현재는 제3기(2018년~2020년)로 20개 분야 107개소의 전문병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제4기(2021년~2023년) 지정을 위한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제4기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와 중복되는 재활의학과 분야가 폐지되어 19개 분야의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14권 5호에서는 ‘전문병원 지정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도입 10주년을 맞이한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정부, 학계,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정부는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재정절감 효과, 환자만족도 제고, 공공 의료 역할 수행 등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이용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중소병원의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을 개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의료 질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향후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 관점에서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완화 등 순기능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부분이 있는 반면, 의료질 지원금 등 보상체계 개선, 응급분야에서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전문병원의 홍보체계 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021년 제4기 전문병원지정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